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社說

母子扶助法에 對하야 — 그릇된因習을打破하라

一

男尊女卑의 그릇된因習과 制度는 數만흔 女子들에게 不公平한 地位를 强要하야 女子만이 感知할수잇는 悲哀를 낫코잇슬뿐더러 社會的으로도 만흔 罪惡을 招致하고잇다는것은 只今에 새삼스레히 말할必要도업거니와 이러케 不合理한 因習과 制度에서 생긴所謂 烈女思想은 守節하는 女子를 烈女로推尊하고 再嫁하는 女子를 悖倫者로 蔑視하엿기때문에 今日에 와서는 獨身으로 生活하여가는 寡婦가 一百十萬이라는 엄청난 數交에 達하게 되엿스며 그들에게 달린 女子만도 一萬四千을 算하게되엿다 그리하야 朝鮮의女子人口總數를 一千萬으로 친다고하면 幼兒까지 合하야 十人이 채모히지 못해서 그中에 寡婦한사람이 끼이게되니 이얼마나 悲慘한 現象이냐?

二

總督府調査에 依하면 現在朝鮮內에잇서 一百十萬을 算하는 寡婦中에 遺産이잇서 넉넉히 살거나 또는 內職을가지고 自力으로 生活을 維持하여나가는사람은 不過十五萬名이고 其他의 九十五萬名은 流浪을하거나 남의집雇傭으로 糊口를 니여가고 그러치안흐면 親族知舊의 救助로 艱辛히 生活을 維持하는現狀이라한다 特히 注目할만한것은 남의 妾이 되거나 甚한것은 賣春까지하여 生途를 니여간다고한다 더욱 甚한것은 一萬四千에 達하는 寡婦의 子女들인대 其中女子의 大部分은生活難으로 酌婦 女給 娼妓等其他 墮落하기쉬운 職業으로 끌려드러가는 傾向이만허 現在이미八千餘名의女子가 花柳界에몸을 더저 墮落의 길을 밟고잇다하며 男子들의 大部分도 失業 犯罪 放浪 其他의 不運에서 社會를 咀呪하고 잇슬것은推測하기 容易한 일이니 社會風敎上으로 보드라도 이얼마나重大한問題이냐

三

寡婦의 守節이 道德的으로 妥當하다고하면 社會는 應當 그들과 및 그子女들의 生活을 保障할 義務도 가저야할것이다。 그러나 社會는 一方的으로 寡婦의 再嫁를 蔑視하고 그子女들의 墮落을 誹謗할망정 그들에對한 救濟策을 講究해준 일은업섯다 學識과 體力을 具備한 男子도 生活者에 시달리는現代社會에잇서 舊式家庭環境에서 男便을 依支하고 살든 無力한 女子에게 一身의 自立을 希望하는것도 오히려 過恨한데 하물며 子女까지 養育하라는것은 無理도 甚한 無理일것이다 그러므로 寡婦가 不義의 길을 밟고 그 子女들이 墮落하는것은 單純히 當事者의 罪過로만 責할수없다 社會도 應當 其責任의 半分은 引受하고 그들의 扶助策을 講究할 義務가 잇는同時에 이러한 社會惡의 根本原因이 되여잇는 그릇된 因習을是正할 勇氣를 가저야할것이다

四

總督府社會課에서는 明年에 母子扶助規則을 制定하야가지고 寡婦와 그子女로 生活을 維持할方途가업는者를 救濟하기爲하야 방금 이에關한 調査硏究를 進行하고잇다한다 歐米諸國에서는 이母子扶助法을 實施하고잇는 곳이 만흐며 大戰前後부터 母子扶助法을 實施하야 生活難에 시달리는 寡婦의 子女를 救助하고잇거니와 우리朝鮮에서도 그릇된 因習의 打破와 함께 扶助를 要하는 寡婦와 子女들이 今日에와서야 그 準備에 着手하게된 것은 多少 晩時之歎도 잇스나 救助를 實施하는 ... 百萬寡婦와 그子女들을 그窮境으로부터 救出하기바란다 그러나 救濟에는 언제나 限度가잇서 반드시人員과 期間의 制限을 밧는것이다 그럼으로 爲先 寡婦를 救濟하는것이 勿論必要할것이나 한거름나아가 이러한 不幸의 原因이되어잇는 從來의 그릇된 因習과 觀念을 打破하기에 努力하야 被救助者의 數를 減하는 方法도 講究하여야할것이다

軍事費가增加해도 公債增發과 增稅는不要

十二年度赤字公債發行額은八億五千萬圓

馬場藏相의財政豫想

【東京電話同盟】馬場藏相은 廿七日 閣議席上에서 將來의 豫算에 對하야 左와 如히 說明하고 特히 公債發行額에 關하야『將來軍事가 增加할 境遇에도 十億을 突破하지는 안흘것이다 그리고 이以上 增稅를 行하지안코 豫算을 編成할수잇슬 것이다』라고 述한것은 特히 注目된다

昭和十二年度赤字公債發行額은 八億五千萬圓인데 昭和十三、十四、十五、十六年度에잇서서도 陸海軍豫算이 膨脹하는 關係上 赤字公債發行은 增加할것이나 大體로 十億圓을 超過하지는 안흘것이다 그리고 增稅는 初年度(昭和十二年)二億圓의 增收이나 十三年以降은 三億圓이될터이며 또 自然增收도 十二年度는 六千萬圓을 豫想하나 今後는 近年와 가튼 自然增收도 至難할 것이라고 觀測한다 따라서 今後다시 增稅를 行하지안코 約二億圓增收를 豫想할수잇는 關係上 軍事豫算이 膨脹하는 年度에 잇서서도 赤字公債를 十億圓以內에 머물게할수잇슬뿐더러 昭和十七年度에는 七億圓 十八年度에는 六億圓으로 赤字公債를 漸次減少할수잇슬것이다 따라서 將來의財政計畫은 반드시 悲觀할必要가업고 目下第二次增稅를 行할必要는 업다고信한다

至急法案의回附를 各省에要請

【東京電話同盟】明年度豫算은 二十七日豫算閣議에서 正式決定하고 今後는 七大國策을 根幹으로 各種革新政策法案作成期에入하얏는데 法案은 實로 未曾有의 多數에 達할터인데 來議會에 提出할 法案은 約七十餘件에 達하야 主稅局關係만 增稅關係約三十件 地方財政關係約二十件의 多數를占하여잇는데 法制局에는 各省에서 아직 거이 回附치안코 來議會까지 겨우五十餘日밧게 남지안코 더욱 萬若이러케 多數한法案이 來月에一擧 法制局에殺到하는時는 同局에서도 審議未了로 終了될憂慮가 잇슴으로 次田法制局長官은 二十四日 次官會議에서 各省에 對하야 至急法案 回附를要請한바잇섯다

五相會議延期

【東京電話同盟】地方制度及議會制度改革의 五相會議는 二十七日閣議後 內相官邸에서 開催할豫定이엿든가 閣議關係로 中止하고 十二月一日午後一時半부터 內相官邸에서 開催하게되엿다

日中交涉에對한 既定方針不變

首相三相과重要協議

【東京電話同盟】廣田首相은 閣議後 有田外相 寺內陸相、永野海相三相의 參留를 求하야 約二時間 對中問題에關하야 重要協議를 遂하엿다 그리고 日中交涉은 中國側의不誠意로 其後 依然 進捗되지안코 全然停頓狀態에 陷하여잇슴으로 席上에서 有田外相은 交涉經過及 中國側의情勢를 詳細說明하고 아울러 外務當局의意見을述한다음 이에基하야 今後方針을 協議한結果 既定方針에關하여는『어데까지든지 所信貫徹에努力』하는데는 何等變更을하지안코 交涉停頓打開에關한 外交的手段方法에對하여는 適當한 處置를 外務當局에 一任하기로 意見一致되엿다

『바르셀로나』港外에 安全地帶設置!

西叛軍政權이英國要請으로

【부르고스卄六日發同盟】西班牙革命政權은 英國政府의 要請에 基하야 바르셀로나港外一定水域에安全地帶를 設置하기로되엿다 右地點은 北緯四十一度二分으로 西班牙陸地와公海와의 中間이다

實質的으로 國防費는半額

【東京電話同盟】明年度豫算總額은 三十億四千萬圓으로 決定하야 今年度實行豫算總額二十三億一千百萬圓에 比較하야 實로七億三千萬圓의 未曾有의 激增을示하엿다 勿論財政의 膨脹은主로 國防費의增大에 基한것으로서 明年度陸海軍兩省合計額은十四億九百萬圓으로서 歲出總額의四割六分三厘를 示하고잇다 昭和三年度以後 日本財政上에잇서서 國防費의增加率을示하면 左와如하다(單位百萬圓)

年度	豫算額	陸海軍國防費	割合
昭和三年	一、五三四	四八七	〇、二七七
同四年	一、七七七	四五三	〇、二九
同五年	一、四三〇	四四二	〇、三三〇
同六年	一、三三四	四〇六	〇、三〇四
同七年	一、八五四	六八六	〇、三七六
同八年	二、二九	八五三	〇、三九九
同九年	二、三三四	九四一	〇、四〇三
同十年	二、二五二	一、〇三二	〇、四六一
同十一年	二、三一〇	一、〇六〇	〇、四五八
同十二年	三、〇四三	一、四〇九	〇、四六三

陸海軍兩省以外의 豫算에서도 遞信省의 燃料國策等 廣義國防이라認定될經費가 極히 巨額에 達하고잇스므로 明年度 豫算은 實質的으로 거의太半이 國防豫算이라하여도 過言이아닐것이다

蘇官憲에拿捕된 朝鮮漁船의釋放要求

日本海沿岸漁場에서 活躍하는 半島漁船을 蘇聯官憲이 拿捕하는事件이 頻發되여 今夏八月부터 十一月까지 拿捕되여 아직 釋放되지못한것이 五十隻에 及하야 八十餘名의 船員漁夫의安否가 念慮되여잇는 現狀임으로 其釋放에 關하야 總督府에서는 目下 渡東中인 相川外事課長으로 하여금 外務省을 通하야 蘇聯當局에 嚴重抗議를 發하는同時에 即時釋放을 要求하고 彼下浦鹽總領事로하여금 其善處策을 講究케하기로 決定하엿는데 兩三日中에 相川外事課長은 右에關하야 外務當局과 妥合을 遂하게되엿다

西首都撤退民 二十萬에到達

【마드리드二十六日發同盟】首都陷落을압두고 마드리드市民은續續首都를 撤退하야 二十六日現在로 總數二十萬에 達하엿다 米國大使館도 本國政府의 訓令에 基하야 閉鎖하고 館員은 居留民과함께 바르셀로나로避難하엿다

宋哲元氏秘密히 蔣介石와會見

山西中央軍의配備狀況報告 二十九軍의協力指示

【上海廿七日發同盟】中國關係筋에依하면 冀察政務委員長 宋哲元氏는 二十六日午前十時秘密히 飛行機로 洛陽에 赴하야 約一時間에 亘하야 蔣介石氏와 會見을遂하고 夕刻 北平에 歸還하엿는데 宋哲元氏는 蔣介石의招聘에依하야 洛陽에 急行한것으로 右會見에잇서 蔣介石氏는 綏遠省東部 中央軍隊及 山西中央各軍隊의 配備狀況을 說明한後 中央軍은 察北軍의 根據地인 察哈爾商都를 目標로 攻擊을 取할方針이라고 傳하고 冀察政務委員會及 第二十九軍은 이에協力할것을 明示하엿다고한다

陳誠氏指揮下에 察省攻擊開始

【上海二十七日發同盟】山西綏遠剿匪總指揮陳誠氏는 二十六日太原에서 閻錫山氏와 會見하고 山西軍綏遠出動 中央의軍費支給及 中央軍의 山西入等에對하야 長時間協議하엿다 陳氏는 二十七日再次飛行機로 綏遠에向하야 마침내 戰線指揮에 當할터이다 그리고 綏遠에 到着한 中央軍各隊도 陳氏의 指揮下에入케하야 陳誠氏는 綏遠軍 山西軍 中央軍約七萬의 大軍과 優勢한 航空隊를 引率하고 積極的으로 察哈爾에 向하야 攻勢를取할模樣이다

對滿大量移民의 拓務案容認

【東京電話同盟】政府가 重要國策七項目의一로서 決定한 對滿移民의 實踐에關하야 拓務省은 當初二十個年百萬戶의 大量移民計畫을 立案하고 明十二年度에 豫算九百七十萬圓 一萬戶移殖을 實現할라고하엿스나 大藏當局은 此等 四百九十八萬圓 六千戶의 移民送出豫算만 承認하엿스므로 拓務省에서는 어데까지던지 對滿移民의 初志를 達成하고자 昭和十二年乃至十六年에 至하는 五個年間에 十萬戶移民의 實施를 大藏省當局에 强硬히 要求하야 軍部의支持를 엇고 그根本方針이 容認되엿스므로 二十七日豫算閣議에서 對滿移民五個年十萬戶의 實施細目이 正式으로 決定되기로되엿다

明年度公債內譯

【東京電話同盟】昭和十二年度公債發行豫定額은 左와如히 一般會計歲入補塡公債는 五億二千百萬圓으로 十一年度에比하야 九百萬圓의增加에不過하나 滿洲事件公債는 九千二百萬圓 特別會計總督府事業公債는 三千四百萬圓을 各其增加하엿다(單位百萬圓)

內譯	明年度	本年度	比較增
▲一般會計			
臨時軍事費公債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震災公債	二	九	[illegible]
滿洲事件公債	二六六	一七五	九二
歲入補塡公債	五二一	五一二	九
計	八〇六	七〇二	一〇五
▲特別會計			
遞信事業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帝國鐵道	[illegible]	[illegible]	九
朝鮮總督府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計	一五五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第一回豫算閣議

【東京電話同盟】空前의 膨大豫算三十億四千百萬圓을 俎上에 올려노코 第一回豫算閣議는 廿七日午前十時부터 首相官邸에開會 廣田首相以下 全閣僚出席 爲先 馬場藏相으로부터 昭和十二年度一般會計總豫算의 大藏省査定原案을提示하고 豫算案內容及豫算編成方針을 說明하고다시 後年度財政計畫의 豫定等을 詳說하야 各閣僚의 諒解를 求하엿다 此에對하야 二三質問이잇섯스나 今回는 豫算閣議前에 大藏省과 各省과의 間에 豫算折衝을 거듭하야 充分諒解가 成立하엿스므로 此數年來 豫算閣議때마다 反復한 波瀾도 紛擾도업시 未曾有의 膨大豫算案의 大綱을 決定하고 豫算案의 內容에對하야는 即日大藏省으로부터 發表하기로되엿다

退職法施行勅令 二三日中에公布

【東京電話同盟】明年一月一日부터 實施할 退職積立金及 同積立法施行勅令은 二十七日閣議에서 決定하엿슴으로 即時 上奏御裁可를거처 三十日又는 十二月一日에 公布하기로되엿다 本法實施에 伴한 關係職員의 增員에 關한 官制는 閣議에서 決定하야 十二月一日公布하는 同時에 實施하기로되엿다

行政機構改革問題

國防的見地에서 地方制度를刷新 (八)

金翰容

地方行政機構改革에 關해서는 軍部는 그提案에 잇서서『地方行政機構의 整備改善及 國運의 進展에 伴하야 地方行政制度를 刷新한』이라고 잇슴에 이것으로서 具體的 說明은 업서는데 이것으로서 解釋하면『整備改善』이란것과『國運進展에 伴한 刷新』이라는 두가지 目的이되다. 前者는 即 現制度의 缺陷을 是正함에 目標를두고 後者는 時代에 相應한 積極的 改革에 重點을 둔것이다. 그러면 地方制度의 改革이 要望되는 根據로서 어떠한 缺陷을 現制度에서 發見할수가 잇스며 또 積極的으로 改善하고저하는 對象은 어떤것일가? 이것을 簡單히 一言으로써 蔽之하면 地方의 所謂 市町村은 政爭의 場所로 化하야 自治制는 어떤 때문에 既關되고 中央官廳의 割據主義에 依한 不統一은 地方에까지 그대로 延長되어 市町村이라는 自治體와 農會、産業組合과가튼 産業團體가 서로 對立하야 各其 다른方向으로 向하야 無事에 對立抗爭을 繼續하고 잇는것等은 産業振興을 阻害할뿐아니라 延하여서는 農村窮乏의 原因도 되고잇는터이니 中央機構改革과함께 이缺陷을 是正하여야 하겟다는것이 前者의 根據요 現行地方行政機構는 明治二十二年에 自治制를 施行한以來 이미 五十年이되나 그間에 地方制度를 改革하엿다는것은 大正十三年 加藤高明內閣時代에 郡役所를 廢止한 것뿐이오 그以外에는 이러한 改革이 업섯는데 이는 一面 地方行政機構는 極히 複雜하야 그改革은 困難을 伴하기 때문이겟지만, 如何튼 五十年동안에 制度의 改革은 部分的末梢的改革에 끗치데 對하야 一方으로 國民의 政治思想을 普及하야 文化、産業、交通 其他各般의 社會情勢는 急激한 發展變革을 遂하야 實際事情과 制度와의 사이에는 큰 隔離이 생기게 되엇스니 現今의 實際事情에 適合한 制度에로의 改革이 要望되는것은 時代으로보아 또한 當然한 일일것이다。하물며 軍部가 中央機構를 全體主義目標下에 이를 改革하고저하는以上 地方도 이에 呼應한 改革을 하고저할것은 當然한 歸結이라 할것이다。

地方制度의 改革이 要望되기 始作된것은 벌서 齋藤內閣時代부터엿섯다。齋藤內閣의 昭和七年에 일어킨 農林更生運動이란 무어이엇든가? 市町村에 잇서서의 政民兩派의 激烈한 政爭이 地方自治體團體의 遊離分化를 結果짓고 官僚의 獨善主義와 勢力扶植慾이 自治體內의 各部門을 誘致하야『隣保共助』라는 自治體의 根本精神이 喪失되고 分立分化의 弊害가 甚하게되어 果는 産業 振興을 阻害하고 이어서는 農村疲弊의 一原因이 되어잇는터이므로 이것을 是正하고 本來의 自治精神에 돌아가 各村이 一致團結하야 産業을 振興하자는것이 所謂農村更生運動이엇스니 여기에서 改革意見은 벌서 胚胎되어잇다고 볼수잇는것이다。그러나 今日에 이르러서는 이러한部分的이오 姑息的인 改革으로서는 所期의目的을 達할수업스므로 첫재 中央集權이냐 地方分權이냐 하는 根本問題에 還元하고、다시 地方行政機構와 地方制度와를 區別하야 根本的으로 調査硏究하야 時代가 要望하는 改革을 實施하지안흐면 안되게 되엇다。即 地方分權이건 中央集權이건 一元論으로서는 이問題를 解決할수업스므로 如何히 이兩者를 合理化할것이냐 하는것이 問題이며 다음 地方行政機構와 地方制度의 兩者로 區別할수잇는데 行政機構라는것은 府縣廳、地方鐵道局、遞信局、稅務監督局 森林局等 上層官廳의 命令에 依하야 活動하는 機能을 가진것이오 地方制度는 府縣、市町村과가티 法律이 許하는 範圍內에서 上層官廳과 獨立하야 自治的活動을 하는 것이 本領인데 이어느것에 重點을 둘것이냐 하는것이 問題인바、勿論 이도 하나만을 重視하기는 不可能하고 또한 不合理한것이나, 이에 對한 充分한 調査硏究가 必要할것이다。五相會議가 이地方制度改革의 硏究를 擔當한以來 累次 이問題의 討議를 거듭하고잇는中이나 아직 이러타할 成案이 成立되지 안핫다。去十一月四日에 潮內相이 十四項目에亘한 改革資料를 提出하엿스나、이는 主로 官僚의 意見에 不過하엿고, 또한 이를 實施하기로 하거니와 가튼地方機構改革에 對해서도 政黨은 自治機構擴張을 主張하고 官僚는 自己擁護의 立場에서 市町村自治에 對하야 統制를 强化하려고하고 軍部는 全體主義에 依한 見地에서 全體主義統制를 極力主張하고 잇는터이므로 어느方向으로 改革이 進行될는지 注目되는 同時에 이 相異되는 意見을 무엇으로써 和衷할수잇슬는지 今後의 進展은 興味로서 보이게되엇다。

夕刊後市況 廿七日

◆大阪 短期 無記◆
大新 一七〇、八〇(不變)
鐘新 一八二、〇〇(不變)
日産 一八四、〇〇(不變)
東新 一四〇、五〇(二〇低)

◆橫濱 生糸 後引◆
當限 — 先限八六九、〇〇

◆藤井 人絹 後引◆
當限 — 先限六四、七〇

我社의 提供하는 特別養老保險이 有利한 所以는 即我社의 옴쪽이지안는 社是堅實主義 經營方針이 徹底한 까닭입니다!
보시라 高率利益配當 保險料의 四分五厘現行●保險金에對한 最高二割의 滿期割增金付●最新最善加入者本位의 約款
【新貯金讀本贈呈】本社로葉書로申込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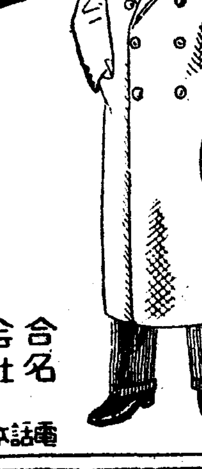
飽まで有利

大同生命
●本社大阪土佐堀 京城支店 京城府南大門通

軍手의副業
軍手製造家募集
말할것도업시軍手는軍需品으로國防資源品이며 需要가莫大하고 前途洋洋한것으로 언제나잘팔리는대다가 누구든지 할수잇는 家庭副業으로 收入도 적지안흔 것이다 그래서 我社는굉장히能率이놉고또使用簡便한 自動軍手製造機의專賣特許의大發明을完成하고이것을우리專屬製造者에게提供한다。本機械는누구나使用하면 能率百倍이며 月百圓의收入은누구나容易할것이다。專屬者로서의特典 製品은全部永久的으로引受하고原料도配給하므로 어떤山間僻地에서든지安心하고開業할수잇는事業이다 製造法無料敎授하며 副業又는專業을希望하시는분은곳申込하라。(詳細案內書進呈)
申込所 京城府 福積編物工業朝鮮營業所
本社 大阪市北區岩井町二丁目 電話光化門二二三四番

鼻耳의病
코와귀病에 바르는藥
코와귀가압흐면 頭腦를낫부게함으로 大端치안을때에 이藥으로속히 곳치십시요
定價 二十錢 三十錢 五十錢 一圓
大木耳鼻藥
發賣元 大木合名會社 東京神田・大阪淡路町

靑少年 通信社員募集
小學卒業程度 自宅執務可能 高尙、愉快한業務(事務簡易) 月收多大、略歷記入葉書申込 次第詳細書無代進呈
和歌山市新內町 昭和通信社

名古屋特産羅紗 各種オーバー特卸價
前片No.60 ¥4.00
前両No.65 ¥4.40
カタログ進呈
合名合社 荒木商店
名古屋市東区宮町 電話本局三二〇四・七八八六 振替名古屋一五〇六


日用陶器一切卸問屋安賣本位
一本安い陶器の仕入は
直接産地へ…御仕入の絶好機
內地向 朝鮮向 滿洲向 臺灣向
御照會次第 八百種類記載 カタログ進呈
陶器百般の卸デパート
岐阜縣多治見町 田中一郎商店 電話七〇番
冬火鉢 植木鉢 特價提供 (カタログ進呈)
照會卽答! 出荷は特急!!
通信販賣の元祖

額緣 額緣組仕機械
額緣
名古屋市東区赤萩町 高山額椽製造會社
敷地 千百坪 從業員 九十名 日産 四千本
カタログ要郵券二錢

風雪의猛威에 各線故障續出

惠山、白茂兩線 運轉危險으로待機中

혜산선(惠山)백무(白茂)선 방면은 이십칠일정오부터 눈보래가처서 렬차와운전은 위험하게되야 다 움직이지는 모다대기중이다

▲혜산선 청해 팔십삼 청해 팔십사 청해 팔십오 청해 팔십륙 렬차는 합수(合水)백암(白岩)사이의눈보래 (동수이십이 매롱)를말미암아 그사이의 운전을중지하고 모다합수로부터 뒤돌려운전할예정이다

▲백무선 청해팔백이호렬차는 북계수(北溪水)역에서 눈보래가끗나기를 기다리는중인데 아즉회복될 가망이업다

東海北部線列車 强風으로前進中止

南涯驛집웅은날려가버려

이십칠일 오전일곱시사십오분 원산(元山)을떠나 간성(杆城)으로가든 렬차가 동해북부선(東海北部線)남애—장전(長箭)사이를 진행하든중강한바람에 을바더 가든열시반에드디어 진행을못하고 목하 그지점에서 주춤하고잇다 그리고남애역의 집웅이 바람에불려 날러가버려서 소동을 일으키고잇다

轉轍器凍結 列車運轉不能

廿六日夜安奉線에雪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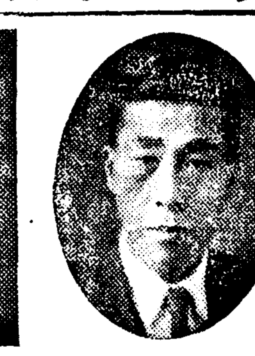
이십륙일밤이래 큰눈이 부려처서 봉천(奉天)부근의 강역의 전철기는 모다 얼어부터서 렬차운전을 못하게 되엿기때문에 이십칠일안동(안동)을 오전여섯시이십분부산(釜山)으로가는 제일렬차와 및 오전아홉시이십분에떠나는 제사렬차는 안동서특발햇다。

七十老勞働者가 同宿人을殺害

【浦項】지난이십오일 하오열시경 경북포항읍동빈정(東濱町)랑산로동자합숙소(勞働者合宿所)압 길거리에서 윤덕우(尹德友)(七○)란자가 김봉삼(金鳳三)이란 사람을 죽이고잇서서 린근주민은 대소동을 일우엇다 가해자 윤덕우는 즉석에서 급보를접하고 달려온 소관포항경찰서원에게 체포되어 엄중한취조를 밧는중이라는데 이제 그자세한 살해원인을듯건대 피살자 김봉삼은 가정을가지지못한 군색한 호리비로 금년 열살된명도(命道)라는어린자식을 가젓스나 의탁할곳이업서서 자긔가긔숙하는 공동합숙에서 동무로중자의 환심을 사가며 지낫는데 지난이십오일밤에는 매양끄려두든자리를 명도(命道)가 이저바리고 끄려두지안엇든바 몽숙하는 윤덕우(尹德友)란자가 명도의 부친 봉삼에게 달려들어 남의숙박소에 자식까지 다리고와서자며 자리를준비도 웨해두지안엇느냐고 폭행을가하야 호용을 불동시겨서 그가티 참살함이라고한다

世界基靑大會에 兪、具兩氏參席

來月一日京城發登程



명춘일월일일부터 인도(印度)『마ㅣ드라쓰』에서열리는 제이십일회세계긔독교 청년회대회에 참석코저 조선긔독교 청년련합회대표 련전(延專)부교장 유억겸(兪億兼)씨와 중앙긔독교 청년회총무 구자옥(具滋玉)씨는 오는 십이월일일 오후네시 십오분경성역발 아까쓰끼(아까쓰끼)로 출발할터이라한다 량씨는 십이월십일문사(門司)출범의 안양환(安洋丸)에 승선할터 라하며 명춘이월중순에귀경할예정 이라한다 (사진바른편은 유억겸씨 왼편은 구자옥씨)

世上을悲觀하고 妙齡女의自殺

【大邱】생활난에 빠저서 어여뿐 젊은녀자가 자살한사건=이십오일오전열시경에 대구부외성당못(聖堂池)에서 젊은녀자가물에빠저죽어잇는것을 통행인이발견하고 대구서에 알리여와서 대구서원이 공의를대동하고

三人組少年窃盜 淸州署에打盡

【淸州】지난이십오일 청주경찰서형사대는 청주읍시장에서 모다십오세가량된소년네명을 검거 엄중취조중이라는데 탐문한바에 의하면 이소년들은 청주시장을 중심으로 장날을리용하야 수십차례에긍하야 현금을절취하엿든 대 그피해액이 수백원에달한다하며 여섯아이들이 서로편리하게 교묘하게 범행한것으로 그 교묘한범행에는 취조경관으로하야금 놀내게하엿다한다

問題만흔李洙倬 裡里로押送

【朴小植은釋放、눈물겨운差入情景】

【裡里支局電話】루보=문제만흔 리수탁(李洙倬)이가 팔년이란긴 동안 미결에잇다가 최후심리에서 무죄의판결을 밧고나와보즉 아버지의 거대한 유산이 흐지부지 되여버렷슴에 깜작놀라그 회수를 목적으로 사백사십삼명을대로 그반환청구소송(返還請求訴訟)을 제긔한후 도리허이 피고들에게 그어머니박소식(朴小植)과함께 사긔의고소를 당하엿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박소식은이미 이리서(裡里署)에서 취조를밧고잇다 드되어 경성에서 체포되여 이십륙일오후 사십이분차로 이리서에압 래류치되여 고엄중한취조를밧고잇스며 리수탁이가 류치되는동시에 그어머니박소식은 석방되엿다 리수탁이가사긔고소를바든건수는 사십팔건이란다수에달하며 그에게제일만히 사긔당하엿다는 론산(論山)리중봉(李重奉)이가 이고소사건원고측에서는제일선에서활동을하고잇다. 그리고 석방된박소식은 그의아들이류치된것을알고 이십칠일아츰에음식을가지고 이리서에낫하나 차입을애원하엿스나 결국허가를어지못하고 울며도라가는 광경은 그래도 거룩한 모성애의발로로 일반의주목을 끄으럿다

少年窃盜兩名 本町署에被捉

이십칠일밤 일곱시반지나서 본정서원이 관내를 순찰중 남산정(南山町)모회사원의 집뒤문으로 다려나는 두어린아이가잇슴으로 곳그서에 인치하야 취조한결과 배상옥(裵相玉)(一六)리군석(李錫石)(一○)으로 그들은 그전부터 그서에서 소년절도로수사중의 인물이든것이 판명되엿다 그들은그날저녁 전긔집에서 재상시계하나를 훔치고 나오든길에 맛침그와가터 체포된것인데 취조에따라피해가 국히만흘듯이라고한다 그리고그들은 절도드려간 박갑주인의 명함(名刺)을 훔치다가 이상하게녁이여 바갓주인이업는 틈을타서 그집에가서 박갑주인의신부름이라고하야 이상원씩 편취한사실도 수차잇다고한다

三署에警官增員 輕機關銃도配置

【咸興】국경의 정세가날로험악화하야가는데비추어서 국경경비의 강화(强化)를 절실이늣기든 함남도경찰부에서는 그경비의확충에대하야여러가지로 충독부와절충중에잇든바 이번그것을 충독부와협의하고 돌아온 도경찰부상야무과장(上野)말을들으면 국경제일선인 혜산(惠山)호인(好仁)신갈파(新乫坡)의 삼경찰서에새로경관사십이명을 증원배치(配置)하기로되얏다고 하며 금년도이내로 경긔관총(輕機關銃)이십이문을배치하야 함남도의 국경도 면목을 일신하기로되얏다 며배나 더강화된 국경경비 성가를 경비진용이충실해질것이라고한다

組合側、會社側에 第二次의反對決議

酒販排擊事件後報

조합측의 오개조요구조항에대한 회사측의회답이 무성의하다하야 대책을 강구하고잇든 경성양조조합련합회에서는 이십칠일에 다시회사측에 제이차의 반대결의문을 송달하엿다는데그것의내용을 들어보면 다음과갓다。

一、주류는 보통음식물과 달려 인체에 밋치는바 영향이크다 그런데 구역철폐를 안한다면 구역에따라 불량주가 생기는 경우에는 신용상 조선주의운명에도 큰관계가잇겟고고객의 불평을 살념려가잇다

二、배달시간의폐지는 일반소매업자의 실정을 고려하야 꼭단행하여야한다。소자본을 가지고 영업을하는 소매업자에게 일정한시간을 제한한다는 것은 말이아니다。

三、무허가영업자에게 다섯되이상이면 고가(高價)로 수용한다하나 이는소위약육강식이다

四、용긔(容器)문제에대하야는고객의 이론(異論)이 잇스니까 용기를 전부개량한후가아니면 주가를 올리는것은부당하다

十一月中避難民 二百餘名의多數

【咸興】함흥국내로 피난하여온 대안 공산군토벌대들의게 집을태워버리고 가장집물(家藏什物)전부를 업새버린후에 시시각각으로 금품(金品)을 빼앗기고 전멸(全滅)식히겟다는 협박(脅迫)이 두려워서 부득이 강을건너 조선내지로 피난하야온 이주동포들이 지난십일월일일부터 이십오일까지 이십여일간에 이백하나에달하엿는데 이수자는 전월분의 피난민수보다 오히려 몃만흔 형편이라고하는데 얼마나 함남도대안의 형세가 험악하엿든가를 짐작할수잇다

詐欺賭博꾼

시내수은정(授恩町)이십삼번지 김종운(金鍾雲)(三○)외 한명이 이십륙일오전열시경에 시내가회정(嘉會町)일번지 일백삼십구호 손창원(孫昌元)을 술을취하게 맨든후 전긔 김종운의 집에서 도박을하야 손창원의돈 삼십사원을 편취하고 그중두명이 시내종로서에 부잡혓다

列車時刻改正과함께 郵便物遞送速達企圖

急行車利用南北間의配達을迅速化

遞信局의立案完了

來月一日부터實施

오는 십이월일일부터 렬차시간이 개정되므로 체신국에서는 이에따라 우편물의속달을도모할 개획으로 일즉부터 제반준비를 하여오든중드되여 그안이 작성되엿스므로십이월일일부터 실시하기로되엿다 그개정된 요점을들면 다음과갓다

(1) 이번에새로 개통하게된 부산 경성사이의 초특급(超特急)렬차『아까쓰끼』를 리용하야 일본내지 및 부산방면 대경성이천지방 발착우편물은 이차에 실는다 따라서 오전여섯시에 부산에 드러오는 련락선으로 일본내지 방면에서 오는 우편물은 당일의 오후세시 네시반까지에 경성시내 집배인(集配人)이 배달하러나가기로되고 또오후두시까지에 경성시내에서 우체통에너흔 일본내지 및 부산방면으로가는 우편물은 당일오후 열한시반 부산출범의 관부련락선에 접속되게되므로 종래에비하야약세시간이나속달되게된다

(2) 급행렬차『노조미』에는 종래에부산 경성사이에만 우편물을 실엇스나 십이월일일부터는 부산 안동현(安東縣)사이에 연장하야 부산 대구(大邱)김천(金泉)대전(大田)(호남선방면에도) 조치원(鳥致院)(남행차에만)천안(天安) (북행차에만)경성 개성(開城) 사리원(沙里院)(남행차에만) 평양(平壤) 정주(定州) 선천(宣川)신의주(新義州)의 각지 및 일본내지 만주사이의 발착우편물도 이에실어서 체송하게되므로 이상주요지의 우편물은 현저히 속달하게될세음이다

(3) 급행렬차『히까리』에는 종래 경성 평양 신의주가지의 발착우편물도 내지만주사이의 발착우편물을 이차에 실어서 체송하게되므로 이상주요지의우편물은 현저히 속달하게될세음이다

(4) 십이월일일부터 안동본선(安東本線)의 개고개(价古介)로부터 정천까지 철도(鐵道)연장에따라 평양 정천사이에 우편차를 련결하야 평북지방벽지(僻地)방면 발착우편물을 이차에실어서 그것을 신속하게하는 일면으로 종래에는 신의주경유로 체송되든 초산(楚山)고장(古場)위원(渭原)방면의우편물은 이 정천경유로 체송하기로 고칫스므로 최신 속달되게되엿다

(5) 기타철도다이아의 개정에딸아 전조선적으로 체송시간을 개정하고 또는 체송방법을 개선하야 속달을 도모하기로 되엿다한다

曹國安共軍大部隊 同胞村을再襲擊

六十餘戶掠奪、人質八名拉去

公安隊兵舍까지燒却

【咸興】십삼도구삼포동(十三道溝三浦洞)에움겨와서 동시가지를 규시(窺視)하고잇든 공산군조국안(曹國安)의일대일백오십명은 이십륙일오전다섯시경 동구도천리(桃泉里)부촌(北村)동포촌을 습격하야 약륙십여호를 모조리 추어서 식량(食糧)의복 가축(家畜)등을 잇는대로모다 빼아슨후에 동지공안대(公安隊) 병사(兵舍)에 불을질느니 전부태워버리고 동포 박범금(朴凡錦)(二七)등 여덟사람을 인질(人質)로 부잡어가지고 여섯시반에 몰아갓는데 먹을것입을것을 빼앗기고 울음으로난 이주동포들의정상은 참아못볼참상이라고한다

普專의健鬪도헛되이 延專軍遂優勝

道商은培材를一蹴

第十回 籠球聯盟戰 第19日

朝鮮中央基督敎靑年會主催의第十回全京城籠球聯盟戰第十九日은二十七日午後六時四十二分부터鍾路靑年會室內코ー트에서열린바第一次戰인 徽文對靑學戰으로開始한바 다음과가튼 戰績으로徽文이 靑學軍을 道商軍이 第三次延長戰에 培材를이겻스며 靑年團의 首位爭奪戰인 普專對延專戰은 兩軍緊張한가운데 열리어 晩餐부터 戰勢는 延專에게有利하게 展開되여 普專을壓倒하고優勝하야籠球王國의名譽를 굿게직히고잇다(寫眞은延專軍)

徽文38(15 23 / 20 9)29靑學

【第一次】中學團第一部戰…徽文高普對靑年學校戰은 同日午後七時四十二分부터 金鎬秀、崔基宇兩氏審判下에 열린바 結局三十八對二十九로 徽文軍이 得勝하엿다

反	得	【徽文】		【靑學】	得	反
0	0	任相葉	F	金奎喜	7	0
1	8	姜日東	F	姜允鎭	6	0
0	9	尹相燮	F			
1	2	黃李鳳	C	金龍洙	4	0
0	0	朴道照	C			
2	12	申國浩	G	金俊泰	6	3
1	7	李明天	G	康仁錫	4	4
			G	金譜昌	2	1
5	38				29	8

道商44(18 9 17 / 16 9 17)42培材

【第二次】中學團第一部戰…培材高普對京畿道商戰은 同日午後七時三十四分 孫龍俊、田盛龍兩氏審判下에 開戰한바 兩軍實力伯仲하야 前半戰에는 十七對十七로同點 後半戰에드러가 同點五次에 大接戰끄테 또九對九同點으로 二十六對二十六으로 無勝負로마치고 延長戰에 드러가 三十四對三十四로 再次同點 되엿다가 第二次延長戰에도 四十二對四十二로同點 第三次延長戰에서 道商軍 二點을너허 結局 四十四對四十二로 培材는涙 惜敗하엿다

反	得	【道商】		【培材】	得	反
0	17	李相勛	F	崔志善	12	4
0	7	孫光善	F	金潤昊	6	4
			F	徐永錫	2	0
4	2	柳永一	C	張元國	8	0
0	2	柳基弘	C			
3	4	韓哲洙	G	成禹慶	4	3
0	12	韓龍雲	G	河우容	6	2
			G	孫曉植	4	0
7	44				42	13

延專62(33 29 / 17 16)33普專

【第三次】靑年團首位決定戰…普專對延專戰은 同日午後八時四十三分부터 張權、李惠濬兩氏審判下에 열린바 激戰끄테 六十二對三十三으로 延專軍이 快勝하엿다

反	得	【延專】		【普專】	得	反
2	18	洪吉淳	F	申光浩	11	4
0	1	方文元	F	李東濵	7	2
0	8	李容馥	F			
0	9	金應鎬	C	崔海龍	9	0
3	0	廉殷鉉	C			
1	16	張利鎭	G	辛在鶴	4	2
3	10	金種信	G	李文鎬	2	0
			G	洪憲錫	0	3
9	62				33	11

第19日現在

【中學團一部】

順位		試	勝	敗	比率
1	中東	7	7	0	1.000
2	培材	7	5	2	0.714
3	養正	6	4	2	0.666
3	徽文	6	4	2	0.666
4	儆新	7	3	4	0.428
5	道商	6	2	4	0.333
6	靑學	6	1	5	0.166
7	一高	7	0	7	0.000

【中學團二部】

順位		試	勝	敗	比率
1	協實	6	6	0	1.000
2	[illegible]	6	4	2	0.666
3	普成	5	3	2	0.600
3	中央	5	3	2	0.600
4	二高	6	3	3	0.500
5	京工	6	1	5	0.166
6	公民	6	0	6	0.000

(漢商…棄權)

【靑年團】

順位		試	勝	敗	比率
1	延專	6	6	0	1.000
2	普專	6	5	1	0.833
3	스타俱	6	4	2	0.666
4	[illegible]	6	3	3	0.500
5	靑友會	6	2	4	0.333
6	高醫	6	1	5	0.166
7	[illegible]	6	0	6	0.000

올림픽委員 副島伯歸國

【橫濱電話同盟】올림픽 東京招致를爲하야 머저歸國한 嘉納氏와함께 國際올림픽委員으로서活躍한 副島伯은 郵船龍田丸으로 二十七日午前八時에『호노루루』로부터 橫濱에到着하엿는데 副島伯은 船中에서談話의形式으로다음과가튼 重要意見을表明하엿다

現在의 體協이 構成한準備委員會를 中心으로 東京올림픽大會의 準備를 進捗케하는 것이 上策일가한다 體協은라투ー르伯을 招致하엿슬때에도 神宮競技場을 會場으로 한다는條件아래 參加케한것이니勿論會場은 神宮外苑으로 定함이조흘줄로밋는다 組織委員長은 德川公에게 懇請하는것이 가장 適當하다고본다 東京大會는 머저 宮殿下를 總裁에 推戴하고 副總裁에 文相、東京市長 嘉納氏 그아래로 會長으로 德川公、그리고 執行委員을 두는것이 조흘듯하다

萬金不換의此事實

●보시요! 朝鮮의貴族、兩班、大臣을비롯하야 各界朝野名士의 最大賞讚 愛用 推奬을밧는補藥은 事實 百補丸뿐임니다

●돈잇고 地位잇는 貴族 名士等의 推奬文과 賞讚은 絕對로 千金萬金으로 엇을수업는것이 事實임니다

●돈보다도 自身의 名譽와地位가 그분들의 生命이며 무엇보다第一尊重하고 貴한것임니다 이러한분들이 一個 藥會社의 營利를爲하야 私情과 돈의 팔니여 特効가업고 高名치안은藥에對하야 거즛 賞讚과 推奬文을 쓸理는絕對萬無합니다 오즉 百補丸의 卓越한 効力이 實로 國民保健上에 必要하다고 認定되엿기때문에 이러케 貴族 名士諸氏께서 이가티 最大한 賞讚과最大한 推奬文을 眞實한마음으로써주게된것임니다

●이것이 補藥界의 大王으로 君臨한 最大의効力을가진 百補丸이아니면 엇을수업는 最大의榮光이요 最大의 名譽임니다

●그럼으로 百補丸의 効力은 只今 다시 區區한 說明을할必要가 업사오니 廣告보다 實際 事實을밋고 쓰시요

●世上에는 別別虛無誇大한 廣告도 다 만흐나 事實百補丸과가치 効力조흔藥은 다시 업습니다

補陽·補腎·補肺·補心·補腦·補脾·補胃·補全身百補·不老更少安仙寶

神人道師 葛玄眞人의秘方藥

百補丸

根本的回春壯陽强精强筋强骨 … 無病健康長壽劑

藥注文 送金은 左記三處中便宜한口座에하시요

一、振替 京城 五番

二、朝鮮銀行本店內平和堂

三、商業銀行本店內平和堂

藥價 一劑特價 拾圓 / 重用試 拾圓

無料進呈 三劑以上共同注文周旋하시면周旋人께一劑無料進呈

●販賣所

一、本社直賣部

二、朝鮮總督府商工獎勵館

三、全朝鮮十三道廳商工獎勵館及商品陳列所

四、全朝鮮和信連鎖店

陽氣不足、氣血不足은長壽못할前兆

●이런분은쓰시요●

●氣血이 俱虛하야 貧血이되고 形容이 蒼白한사람

●性慾이업고 活氣가업고 手足과下초가 恒常濕冷한사람

●肺가不足하고 허리가압흐고 머리가묵업고 精神이흐리고 神經이衰弱한데特効함

●消化不良 체증 속병가튼것은 어느때업서진는지 알지도못하게 업서집니다

●筋骨이튼튼하여지고 氣血이 旺盛하여지고 힘이생기고 順倍力이됨니다

●ホルモン不足으로因한 腦、性神經衰弱人은 더욱速効함니다

●눈이밝아지고 부가조와지고 血色이 조와짐니다

●全身五臟六腑를 다잘補하오니 참말 完全한衰陽變補되는 感은 百補丸服用人이라야만 알것임니다

◎過飮過色人에게는 特別速効합니다

●男女老少勿論하고弱한분은다쓰시요

京城寄堅志町(五·一)

平和堂株式會社藥品部

電光六三二·振替五番

飮毒自殺未遂

이십륙일 오후두시경에 시내 종로이정목 오십팔번지의 이효 김여숙(金麗淑)(二○)이라는여자가 비관한끝에 쥐노곤다음「크로친녹신계를 먹고 자살을 하려고 신음하고잇는것을 집안사람이 발견하고 곳 부근 김종의(金鍾?)의원에 입원시켜 응급치료를 한결과 겨우 생명은 건지엇다는데 그원인은 일정이못하다고한다

市內郵便局에서 配達時刻을改正

十二月一日부터實施豫定

列車時刻改正따라

십이월일일부터 철도시간이개정됨에 따라 우편물배달도 종래보다 훨씬 속달을도모하게되엿는데 경성부내 각우편국에서는 배달시간을 다음과가티 개정하엿다 ▲통상우편물 배달시간은 제일호편은 오전여덟시에 제이호편은 오전열한시반에 제삼호편은 오후 네시이십분에(경성우편국에한하야 오후세시반) 우편국에서 출발하기로되엿고 ▲특수우편배달시간은 제일호편은 오전여덟시에 제이호편은 오전열한시반에 제삼호편은오후세시반에(경성우편국에한하야) 우편국에서 출발하기로되엿고 ▲소포우편배달시간은제일호편은 오전열한시에 제이호편은 오후네시에(경성우편국에서만 오후세시반에)우편국에서 출발하기로되엿다

朝鮮人과遠緣인 市內三個所日用品市場

花園町과龍山과西大門三個所

典洞市場의改備도必要

경성부에서 경영하는 일용품시장은 화원정(花園町) 룡산(龍山) 서대문(西大門)세곳에잇는데 이세곳의 공설시장에서 점포를 비려노코잇는 사람은 거이대부분이 일본내지인이고 또한 팔고잇는 물건도 거의전부가 일본내지인의 소용품뿐임으로 조선사람에게는 별로 리용되지못하고잇다 그래서 일용품은 경성부공설시장이지마는 그리용되는 범위로보아서는아주편벽되여잇다 그러므로 조선사람들 사이에는 남대문시장을 그냥 존속되기를 갈망함은 물론이어니와종로시장 즉 전동시장(典洞市場)가튼것을 확장개선하야 그것을 공설로 하는동시에 조선인 일용품시장이 되도록 촉진할 필요가 잇다고 말하는이가 만타 이것을 실현할수잇고 업는것은 경성부당국자와 경성회의원들의 성의여하에 잇는것으로 아프로 신중히 연구해야될문제이라한다

郊外의畜舍는 取締를緩和

農民의生計를考慮

부내각서에서는 작년오월류일一시한 축사취체규측(畜舍取締規則)에 경긔도령(京畿道令)으로 고시(則)에의하야 상당히 엄중히가축사유자의 취체를 계속하여왓섯는데 이규측은 고시후 시일이 얼마경과하여 잇지안흐며 더욱 금년사월일일에 새로편입된 구역에는 가축을 기르는집이상당히만흐며 그중에는 얼마안되는 토야지와 닭을치가며 그것으로 생게를 세워가는 농가도적지안흠으로 이들인가가 조밀치안흔 지역의 가축사육자에게까지규측적용지역이라는 리유로 인가가 조밀한 부내와가티 이규측을 엄행하는것은 위생상으로보아 대단한 필요를 늣기지안흘뿐더러 오히려 그들의 생활상에 미치는영향이 크다고 생각되여 이들교외에 관계가잇는각서에서는 토지의상황을 고려하야 적당한 처치를 하게될터이나 축사급 분묘저장소의 청결에대하야서는 경찰과 부(府)가 협력하야 만전지책을 강구하게되리라고한다

寫眞은 아마튜어拳鬪選手權大會 第一夜入場式光景

KO續出의熱戰! 『아마』拳鬪開幕

各級決勝과李君歡迎戰은 明廿九日밤 本社講堂에서

전무려가는 금번도 스포-츠계의 종막적인 전조선아마튜어권투권맹주최와 본사후원의 제삼회전조선아마튜어 선수권대회 겸 올림픽대표 리규환(李奎煥)군 환영권투대회는 마침내 작이십칠일 오후일곱시부터 본사대강당에서 열리엇다 정각에 출장선수일동이 링우에나타나자 동대회총무위원 윤종덕(尹鍾德)씨의 사회로 임장식이열리어 대회회장 유억겸(兪億兼)씨의 개회사가잇섯고 선수일동을 대표하야 조권(朝拳)박룡진(朴龍辰)군의 선서문랑독이 끗나니 심판부 성의경(成義慶)씨로부터 경긔에 대한 주의설명으로서 식을마치고 플라이급 제일회전으로부터 장절한 유바전이 열리엇다 이리하야 벽두부터 넉아웃(KO)련출의 열전을전개하야 만장관중으로하여금 열광케하엿다 이날의전적은 별항과가트며 각급결승전과 인끼의초점인 리규환군의 환영게임은 하로를건너서 명이십구일밤 일곱시부터 본사대강당에서 거행하기로되엿다

플라이級

【第一回戰】
金明錫(朝拳) KO 全基成(朝拳)

【準決勝】
金甲奎(朝拳) KO 鄭龍周(京組)
金明錫(朝拳) KO 朴興洙(朝拳)

밴탐級

【第一回戰】
申 一(朝拳) KO 金完基(元山)
鄭鳳鉉(木浦) 判定 李在木(朝拳)
朴春緖(朝拳) TKO 白廷吉(京組)

【準決勝】
鄭鳳鉉(木浦) 判定 申 一(朝拳)
朴春緖(朝拳) 判定 李在弘(朝拳)

페더-級

【第一回戰】
洪鍾殷(朝拳) 判定 尹文楨(朝拳)

웰터-級

【準決勝】
金泰榮(朝拳) 判定 李鍾燮(朝拳)

大邱醫專敗 對普專럭비戰

第十二回全日本高專럭비大會朝鮮豫選準決勝…普成專門對大邱醫專戰은 二十七日午後四時부터 京城球場에서 本多(主)金煥洙、村井(線)三氏審判아래 普專軍『킥어고뇨로 開戰하바 普專의원사이드게임』으로 前半은五對零 後半은二十七對零의 스코어로 遂客大邱醫專軍이 敗退하엿다

【大邱醫專軍】
FW 毛山石綱高小磯崔長祖德上李新(大)
HB 利中井信橋川村泰尾川安野柴田鋼
TB 忠
FB

【普專軍】
FW 欽勳山嶺奎山洙傳培
HB 龍基仁宗貧斗啟仁願秉明性仁
TB 尹全劉裴朴宋金崔金李
FB 曹成專門軍(浩燮林)

今日의運動

▲柔道‖第一回普專對延專柔道對抗戰 午後二時 鍾路靑年會大講堂 (入場無料)
▲籠球‖第十回全京城籠球聯盟戰 最終日 中央對普成(午後六時半) 徽文對普正(午後七時二十分) 道商對靑學(午後八時十分)
▲마라손‖第二十回A마라손會 午後三時 光化門通비거리廣場

今日
時日 今二十八日(土)午後二時
場所 鍾路中央基督教青年會館
第一回普延對抗柔道戰
主催 延、普柔道部 後援 朝鮮日報社
入場無料

科學講演映畵會

延專數物研究會의主催로 今夜本社大講堂서

연희전문학교수물과(延禧專門學校數物科)의 학생들로 조직된 수리연구회(數理研究會)에서는본사학예부의 후원아래 이십팔일 오후칠시부터 본사대강당에서 제일회통속과학강연회(第一回通俗科學講演會)를 열기로 되엿는데 이날밤에는 동교교수 리원철(李源喆)씨가 우주(宇宙)의 팽창(膨脹)이라는 제목아래 재미잇는강연을 하게될뿐이아니라 지구(地球)의 진화(進化)등 일반에게적지안흔 참고가될 과학영화도상영할터이다 또이강연회는 보통강연회와달른만큼 미리초대권을발행해서 그초대권을 가지고오시는분에게 한해서만 입장을허락하기로되얏다

書伯金遂堂 書畵展覽會

【仁川】조선에서가장 명성이노팟든고해강김규진(故海岡金圭鎭)씨문하에서 다년간 매란국죽사군자(梅蘭菊竹四君子)를 연구하든수당김철룡(遂堂金鐵龍)씨는해강선생만못지안케도한 명성이혁혁한청년화백으로서 전조선서화전람회에 세번이나 입선된바잇스며 지금은 서선미술연구협회장으로잇는터인데 요사이인천에와서영정(永井)인천부윤과부천군수허섭(許燮)씨 길전(吉田)회루의수씨의 발긔와 본사인천지국후원알에 시내외리용금루(外里湧金樓)에서 서화전람회를개최하기로 되엿는데 일자는회원이 모집된후에 정하기로 되엿다한다

新編入普校電話開通

종래에 고양군(高陽郡)에잇든 공립보통학교는 전화가 업섯든데 지난번에 경성부구역확장으로 말미암아 경성부로 편입된 보통학교는 이번에 전부 전화를 가설하야 최신편리하게되엿다

仁川

第一回全仁川童話大會
▲時日 十二月二十八日午後六時
▲場所 內里禮拜堂 場內整理料十錢
◇主催 內里幼年主日學校
◇後援 朝鮮日報仁川支局

仁川

古賀對藤崎 對抗拳鬪戰
▲時日 十一月二十九日午後七時
▲場所 旭町西願本寺會館
▲會費 五十錢
◇主催 全仁川拳鬪協會
◇後援 朝鮮日報仁川支局

共存共榮目的으로 永登浦商榮會創立

當地繁榮上期待莫大

【永登浦】최근 비약적발전을보고잇는 영등포의 상업게는 아직까지 동업자상호의 친목을 도모하야써 시가발전상 공헌할만한 이러타할만한 단체가 업슴을 유감으로 녀겨오든터인데 수일전 모모유지들의 의론이 성립되여 지난이십삼일 오후칠시부터 당업자 삼십여명이 경성부영등포출장소회의실에 집합하야 영등포상영회(永登浦商榮會) 창립총회를열고 취지설명 회측통과등이 잇슨후 좌긔의가티 역원선거를한후 동구시경에 폐회하엿는데 금후 동회가 영등포번영상 공헌됨이 만흘것으로크게긔대된다고한다

▲會長 李昌云 ▲副會長 申敬植 飯塚利美 ▲幹事 金顯星 象光憲助 岡八百藏 黃癸鎬 ▲會計 白三龍 ▲評議員 金顯星 岡八百藏 象光憲助 黃癸鎬 朴鍾勳 金昌玉 崔鍾九 李萬春 森岡作造 柳新成 ▲顧問 森高源藏 二階堂昇 金泰集 大塚宗三郎 崔俊永

山田과石福의 取調를開始

이십륙일 동경에서산전광(山田晃)(三七)석복항삼랑(石福恒三郎)(三七)기보의단우(旣報의丹羽)양성을 압래하여온 본정서사법계에서는이십칠일아츰부터 개차그들의행한 공전의금괴밀수사실의 핵심(核心)을탐구하려고 취조를개시하엿다 그리고서북의중병(重病)으로은 의사가진단한결과 취조에는 별반 관계가업스리라하야 그의 취조도 역시계속하기로 되엿다

거리의狼群!

年末에特別團束

어제오늘 날세가 갑작이 추어저서 아주이제는 겨울철이가 떠가는것이 완연하고 관청과회사에는 벌서부터 년말상여금의 이야기로 흥성하고잇서서 시내는 안바그로 세말긔분이 숨여들어 종로거리를 가는사람들의 발거름이 만허지고 빨러젓다 이러한 왕래의 복잡한틈을 엿보고 크고적은 도적이 더욱발호하게될에대하야는 시내각서에서벌서 그방범에 만전을다하고잇거니와 특히 요사히 부녀자들이 흥으물건을 사러 또는 산책을하려종로거리를 만히 나오게되는대 이를 긔회로 종로거리의 불량자들이 이들부녀자에게 희롱을 마음대로 할뿐아니라 심지어 밧눈게 집으로 쫄아가는 녀급기생들이며 기타부녀자들에게 폭행까지하는일이 만허젓는데 그들불량자는대개 떼가 되여잇서 우미관등의 극장아페 라던지 공원부근에 웅거하고잇는것인데 그 취체를 철저히할 필요가잇다는것을 아시하일 종로서 주재(主宰)가 보고하여 왓는바 그서에서는 금후 이들 거리의 악당들에게 한층 매섭게 취체를하리라고한다

羊頭狗肉의景品販賣

今年은嚴重團束

景品代價를商品價에轉嫁 從來의弊端을考慮

매년가티 년말이가까워오면소매상(小賣商)들은 일년동안의총결산으로 그야말로 도미(掉尾)의 대매출(大賣出)을 시작한다 그중까지에는 한달이상이나남어잇는 요사히부터 시내각처에는 『년말경품대매출』이란간판과가튼 『경품』이라는것을 붓치고 손님을끌어에떠이며 이와가티 그들은『경품대매출』이란간판을 붓치고 손님을끌으는것을 상투적으로 쓰고잇다 그러나 이경품대매출의 리면에는 흔히 경품갑슬 매출상품가격에다 전가(轉嫁)시켜 보통때보다 훨신비싸게파는 폐단이만허 이것을 취체하기위하야 별서명치 사사사면 부렴제 사실구호로 일반민중의 사행심(射倖心)을 리용한 이러한 부정행위를 취체하여 왓스며 전조선에서 이러한단상인이 제일만흔경긔도(주로경성)에서는경보계팔천사백륙호에의하야 여러가지 세밀한규정으로 취체를하여오든것으로 금년에도 시내각서에서는 『경품대매출』출원자에게어떠한 조건을붓처 허가한은 물론허가후에도 엄중한 취체를 하다고하니 일반도이런 부정행위에 대하야는 주의를 하기바란다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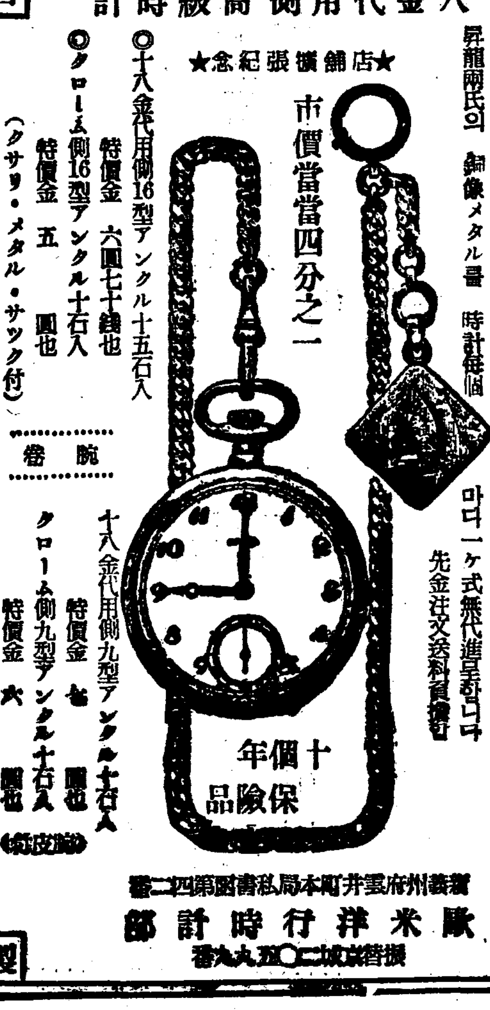
同居人의돈을 훔친것이判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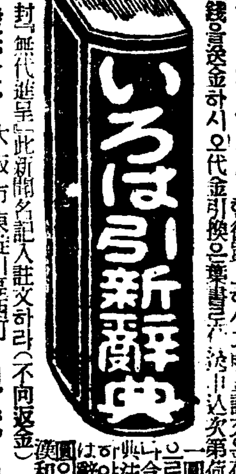
蔡少年의二千圓

조간긔보=이십륙일오후 서대문서에서 이천원을훔친소년 채상직(蔡相植)(一○)이를 체포하여다가 피해자를 조사한중 금이십칠일오전에 피해자가 판명되엿다 즉 경긔도 개소변은 부내합동정(蛤洞町)일백륙십삼번지에사는 최원히(崔元熙)(三○)의 동거인으로 지난이십사일 최원히가자긔부친에게서 저금을하라고위탁바든네원짜리 이십매를 번인채가 훔친것이라고한다

국맛은 이러케하십시오
무슨국이든지 펄펄 끄려낸다음에 아지노모도를 치십시오
국맛이 훌륭해집니다
고기를 안느코라도 맛이각별합니다
味の素 아지노모도 (登錄商標)
宮內省御用達 味の素本舖 株式會社 鈴木商店
11—本

發賣元 大阪東淀川區大川町 振替大阪六八○三番 國民書院投賣部
○定評잇는! 詳解漢和大辭典!
緊急分處大投賣斷行
定價二圓八十錢을 特別景品付로 單只一價二十錢

瑞
驚異的大好評! 斷然人氣集中!! 商報進呈
時計를 購入하실 때는 必히 歐米洋行으로 問議하십시요 今番店舖擴張紀念으로 昇龍兩氏의 景品紹介하오며 兼히 紀念品으로 於伯林第十一回올림픽大會마라손制霸 孫基禎、南昇龍兩氏의 銅像メタル를 時計每個마다 一ケ式 無代進呈하옵니다
先金注文送料貢擔
十八金代用側高級時計
★店舖擴張紀念★
市價當當四分之一
○十八金代用側16型アンクル十五石入 特價金 六圓七十錢也
◎クローム側16型アンクル十五石入 特價金 五圓也
(クサリ・メタル・サック付)
腕時
十八金代用側九型アンクル十五石入 特價金 七圓也
クローム側九型アンクル十五石入 特價金 六圓也
(附皮紐)
十個年保險品

特製 西
京城府本町二丁目局私書函第二四號
歐米洋行時計部
振替京城二○五九九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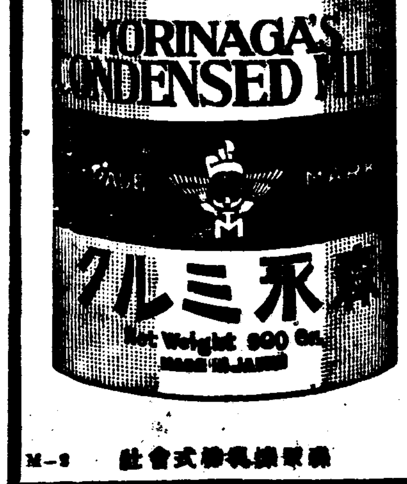
天下一品の漢和大辭典也
熟語解釋無遺拾試萬語
窮く勿れ母字大約一萬有餘
ゾクロース全文字入持製
堅牢幽入·裝飾的優美本
▼總數約二千頁의 大冊
▼從來의漢和辭典의不備된바를 없애고 最新式으로 小學校出身의 學生도 自由自在로 利用할수잇는 理想的大漢和辭典이다
●實은 今回五千部를限하야 破天荒의大安價로 投賣한다
一圓四十五錢을 送金하시오 代金引換은 遠方에게不便
最新刊 御註文은至急으로要

大景品 いろは引新辭典
封無代進呈 此新聞名記入註文하라(不同返金)
發賣元 大阪市東淀川區西町 振替大阪五六○一四番 現代出版社

開業!
今般小生이 左記旅館을 引受經營케되여 內部를 새로修飾하고 國際都市『할빈』에서 우리의旅館으로써의 面目을一新하야 諸賢에게 奉仕코저하오니 만흔愛護가 잇서지기를 바라오며 紙面으로 開業人事를들이나이다 敬具
哈爾濱道裡透籠街三號
青邱旅館 主 張永禮

廿八日封切
每日三回 午前十時半 午後一時半 六時半分
◆와-너-내슈낼超大作映畵
마이켈카데이스 監督
에롤 프린 올리버데 해비란드 主演
海賊뿌루드
雄渾!浩壯!참으로完璧的大衆映畵映畵史上劃時代的大企業下에 完成된 巨篇
◇와-너-내슈낼超特作映畵
巫이뿌라온主演
뿌라온名俳優
喜劇王뿌라온의 紹介할必要없는 喜劇에!! 爆笑孔孟에 興奮萬丈하리라
◇新興키네마超特作映畵
原作 吉川英治 監督 新興藥師寺太
主演 千代田勝太郎 尾上榮五郎 白石明子 松本田三郎
忍術大阪城
(大阪時代劇) 世界의 王者大猩
團成社

十一月二十七日부터三日間
大開大連續最終篇上映
每日三回晝夜公演
一回 十二時
二回 續映
三回 七時始映
大衆料金 階上十五錢 階下十錢 均一
◆朝鮮키네마社超特作品
原作 監督 李奎春 洪開史
朝鮮名篇 悔心曲
主演 尹逢春氏 李圭高氏 金信嶽 王德成氏
마데社特作無聲連續映畵
監督 죠지B사이츠氏
連續篇 冒險하리겐하지
◆松竹下加茂特作『올-쉬운드版』
잘-스합지손氏大熱演
時代劇 心中火取虫
坂東好太郎氏 飯塚敏子嬢 共演
第一劇場
電話光化門一七五五番

●十一月廿八日부터三日間特別開
土曜·日曜·祝祭日晝夜二回
始映은 一時·밤七時半
大衆料金 十錢均一
◆東亞映畵超特作全發聲日本版
비타·샤-데잉가-作曲監督
아메리카의名소라노
歌姬 구레슈·무-아孃 主演
歌の翼
◆朝鮮키네마社提供映畵
朝鮮日報連載小說 原作 崔獨鵑
朝鮮映畵 僧房悲曲
李慶善 金蓮實 主演
◆米國데이뷔드-의 솜라-社超特作發聲映畵
怪靈船
名花로-르서 세바스테이안과 오리부러 上山草人助演
上往十里町 光武劇場

低溫으로 만든으로 榮養은理想的、비타민에豐富
森永밀크
잘도 팔리여서 언제나 新鮮한것을 살수잇게된다


森永製菓株式會社
M-9

產 業

南大門市場은 小賣市場으로 存續

現市場建物과道路를改築해서

中央市場設置後處置

中央卸賣市場 設置後 中央卸賣市場인 現南大門市場의 處置는 注目되고잇든바 그는 中央卸賣市場實現後에도 小賣市場으로 存續식히기로 內定되엇다 卽 卸賣市場을 移轉한後는 市場의 建物及 道路를 改築하야 一般市場으로 解放하야 中央卸賣市場에서 都賣된 生活品을 小賣케하기로 되엇다

中央市場에對하야 商議서府說明聽取

京城中央卸賣市場問題에 對한 京城商議側의 態度를 決定하기 爲하야 二十六日 午後二時부터 開催된 緊急役員會에서는 府當局에서 松島總務部長、大野囑託、稻垣勸業課長의 出席을 求하야 于先 田川副會頭로부터 中央 卸賣市場 問題가 具體的으로 萎縮되고 잇는데 右는 商工業者로서도 重大한 關係가잇슴으로 充分히 硏究하기를 希望한다는 旨를 말하고 松島總務部長으로부터 今日까지의 經過報告를 마치고 會議所側의 熱熱한 援助를 希望한다는 旨를 말하고 大野囑託이 中央卸賣市場의 機構 其他에 對하야 約二時間半에 亘한 長講話가잇섯는데 會議所側으로서는 府會側이 十餘名의 委員이 參加하엿슴에도 不拘하고 商議側에서 賀田會頭、伊藤理事二名만으로 商工業者代表機關을 無視한도 甚하다 하야 이 問題는 商工業者에 對하야 가장 重要한 問題임으로 充分히 協議한後에 商議의 態度를 決定하기로하고 午後六時 散會하엿다

價額三十一萬二千七百二十七圓이라는데 그 班別을보면 第一班, 居昌、咸陽、安義에서 七十萬七千八百八十三斤에 對한 賠償金 十七萬六千九百三十五圓、第二班 陝陽、大德、知禮에서 五十七萬八千七百九十一斤에 對한 賠償金 十三萬五千七百九十二圓이라 한다

全朝鮮工業地의 工業用水를試驗

中試에서積極的實施

總督府中央試驗所에서는 總督府의 方針에 依하야 將工業地帶로서의 朝鮮의 地位를 確保하기 爲하야 그의基礎調査인 工業用水試驗을 廣範圍에亘하야實施中인바 그는 全朝鮮 各工業地帶에 實施하는것으로 이미京城에잇서서는 永登浦를 中心으로 一部九個所의 測定을 마치엇스며 從來 거의 絕望狀態에 잇던 群山에잇서서도 十月一日부터 開始하야 目下實施中인바 意外로 好成績을어덧다한다 또 十二月一日부터 釜山에잇서서도 行하고저 準備中인데 當地에잇서서는 約十五個所의 測定을하게되엇스며 今後漸次로 平壤其他의 工業地帶에잇서서도 積極的으로行하기로 되엇다한다

그리고 工業用水試驗의 要旨는 다음과갓다한다

一、用水의 發源及適地의 調査

二、水量의多寡

三、用水의變動

居昌專賣出張所 葉煙草收納開始

【居昌】 大邱地方專賣局 居昌出張所에서는 葉煙草收納을 지난 十八日부터 來年一月二十日까지 管內各收納場에서 施行하는데總耕地面積 一千町步、收納豫想高 一百二十八萬六千六百五十四斤、

五個年計畫으로 薄荷를獎勵

全北道서具體策立案

【全州】 全北道衛生課에서는 金組와 協力하야 農家副業을 向上식히고저 數年前부터 各地에 薄荷를 試驗栽培中이던바 그는 副業的栽培보다 多角農經營上重要한 作物임을 確信하고 道에서는 今後積極的으로 全道에獎勵하고저 面을單位로 栽培契를 組織식히고 道農會에서는 採種圃를 設置하야 優良種根을 그에 配付하는 同時에 生產品은 共同 販賣를施行하며 今後五個年計畫으로 作付面積을 一千町步以上으로 擴張코저 目下具體計畫을 하는中이라한다

水試淸津工場 近日中事務開始

主로鰮處理方法硏究

十一年度豫算에 計上되고 今年度 新設되기로된 總督府水產試驗場 清津工場은 二十四日官制가 改正되엇슴으로 近近 事務를 開始하기로 되엇다 그리고 同工場은 技師一名、技手二名、屬一名으로 朝鮮水產物의大宗인 鰮의處理에 對하야 硏究를 하기로 되엇다 그러고 廳舍는 目下 清津漁港內에 新築中이며 當分間은 假廳舍에서 事務를取扱하다고한다

中旬荷動活況

鐵道局 十一月中旬分 荷動狀況은 前旬에 繼續하야 活潑한荷動을보아 牛東 野菜 木材 薪 木炭 石炭 鑛石 黑鉛 建築材 鹽 雜貨等은 亦是 好調를 示하엿다 今旬의 輸送成績은 二十九萬二千四百六十七噸으로前年同期에 比하면 三萬五千九百八十五噸의 增加이다 主要貨物發送噸數는 如左하다

	上旬發送噸數	比前年同期增減(△)
米		
正租	三、八九六	二一四
粟	六九五	△一、〇三
大豆	三、六五五	△一、〇六
雜穀	四、二三	六七
牛東、野菜	一〇、八九二	一、八二五
木材	八、八九四	一、九〇〇
薪、木炭	八、三一九	二四四
石炭	四三、三一〇	八、五四五
鑛石、黑鉛	一〇、八三七	四、八六一
建築材料	一四、四四四	一、二二四
鹽	二、一一〇	三、一三
鮮鹽干魚	四、〇四七	一、九二三
繩叺莚	三、八九五	△一〇七
肥料	二、三二三	△四三
雜貨	八、〇五五	八、一五六
局用品	三、七八八	三、八九一
合計	二九二、四六七	三五、九八五

北東滿特產 配車不調

北朝鮮에遲約續出

北東滿의特產物의 北朝鮮經由出貨는 今年에入하야 俄然激增하야이미 歐洲向出荷도 四、五萬噸을넘고 日本內地移出도從來의 大連經由가 北朝鮮經由로轉向하야 伊勢灣 阪神敦賀 伏木向의商談이 活況을示코잇는데 昨今의 出廻期를 迎하야 京圖線의 輸送能力에 制限되어 奧地로부터의 出貨가 停滯되고 特히日本內地 移出은 海外向이 先約으로 나종에되어 不渡問題를 續出하는 모양이다 卽滿鐵路總局으로서는 全般的 滿州特產出貨期로 配車增이 圓滑히 되지안허 京圖線의 輸送能力에 制限되고 海外向이 이미入港되엇슴으로配着은이에 向하는 關係上 日本內地間移出의 北朝鮮特產商品取扱은 十一月上旬積 中旬、下旬으로各先約商談을 行하고 產地買付를 하얏슴에不拘코 現品의出廻가 遲延되어 違約이만흔狀이다

그리고商船、朝郵等의 船會社側도 出廻豫想下에 船腹을 契約하야 配船을 行하얏스나 特產이나오지안허 大阪出荷가豫定되고서도 空船으로 走하는配船을繼續코잇다

產金事業躍進

鑛產稅의新設은 獎勵主旨에背馳

金再禁止와 인풀레景氣로所謂 ゴールドラッシュ時代의 展開를보아 產金熱은 高潮에 達하고잇다 이傾向은今日에잇서서도 亦是 持續되야 各地에 黃金海를이루고 이번 稅制改革으로 金產額에 對하야 새로히 課稅되는 不利가 新設되어도 新業의 活躍은 依然 衰微하지안코 도리혀 이제부터 高調될것으로 觀測된다이와가티 產金事業이 急激히發展한것은 主로 金再禁止로因하야 金買市勢가 暴騰된것과 政府가 產金保有의 必要에서買上價格을 引上한것等에 依한다 이제 再禁止後의 金塊市勢의 變動을보면 다음과갓다(日本은 互當 倫敦은 一온스當平均市勢)

年次	政府買上價	東京市場	倫敦市場
昭和六年	—	一、三六九	[illegible]
七年	一、一九三	一、〇〇九	[illegible]
八年	一、二五二	一、九七三	[illegible]
九年	一、六八二	一、六三〇	[illegible]
十年	一、六八一	一、六五九	[illegible]
十一年一月	一、〇五〇	一、一六〇	[illegible]
五月	一、四三四	一、五三二	[illegible]
九月	三、五〇〇	三、五七八	[illegible]

即 政府의 金買上價格은 昭和七年三月 一匁當 一圓九十三錢二厘로 決定되엇든것이十一年五月以後는 三圓五十錢으로 引上되고 市中市勢도 이에따라서 激騰되야 十一年九月에는 三圓五十七錢八厘로昭和六年에 比하야 實로 十六割二分의 暴騰이다 또 日本市勢의 基準이되는 倫敦市勢도 大幅的 昂騰을 告하엿다 이외가티 金塊市勢가 昂騰되고 以後도 昂落低의 景氣와 政府의 產金獎勵期待로 高價가 豫想되는만큼 金鑛石의品位 探鑛範圍擴大로 從來의 貧鑛도 採算하게될것으로 自然 產金量은 다음과가티 激增되엇다(單位數量瓩、金額千圓)

年次	數量 日本內地	朝鮮	台灣	合計
六年	三、三五	八、三三	一、五四	[illegible]
七年	三、三八	八、七〇一	一、六七	[illegible]
八年	一、三五九	一、五八	九、三二	[illegible]
九年	一、五五四	一、三六	一、〇八	[illegible]
十年	一、八三二	一、七〇	一、三三	[illegible]
十一年八月累計	一、三〇	—	—	—
前年同期	一、一五	—	—	—

年次	金額 日本內地	朝鮮	台灣	合計
六年	一五、九三三	九、九八	七、三二	[illegible]
七年	一五、九三三	一、九三三	一、三九	[illegible]
八年	三三、六八	三、五八	三、六八	[illegible]
九年	四〇、五一	三六、五〇	三、八六	[illegible]
十年	五六、三二〇	四〇、四八	一〇、四六	[illegible]
十一年八月累計	—	—	—	—
前年同期	—	—	—	—

特히 朝鮮의 金增產率은 壯觀이다。 新規開發金山은 續續出現되고 그우에 未開의 處女地도 만허서 當局의 產金一億圓案도 決코 夢想이 아니엇다 業界도 亦是 漸增되고 잇다한다。

그增產傾向은 世界產金增勢와 比較하야도 壓倒的으로 크다 即 昭和六年부터 十年까지의 世界產金量(蘇聯分을 除外)은 約六十萬三千瓩乃至 七十七萬瓩로 二割가량 增加되엇는데 日本의 產金量은 同期間 五割六分增加를 보엇다 이는 南阿나 北米產金地가 이미 老境에 드러가 產金量의 增勢가 退步되고잇기 때문이다。 이點에잇서서는 日本은 有力한 處女地가만흔만큼 前途가 有望하지안흘수업다 그러나 日本에잇서서는 大金山의 開發은 一巡狀態에 잇슴으로 今後는 中小金山의 設備擴張、新金山의 開發의 必要가잇슴을 이저서는안된다 이것은 出願件數와 探掘金山의 激增의 例로보아서 明瞭한일이다

◇日本內地金鑛出願件數

年次	試掘	採掘	砂金採取	合計
六年	三一	三八	三二	三一七
七年	三〇	三五	七九	三九八
八年	六九	一〇	八〇	八九二
九年	八七	九八	九三	一、二〇三
十年	七三	九七	九三	一、一七三
十一年八月累計	一、〇七	三一	一	一、六一〇
前年同期	六三二	四五	一	一、五〇九

◇探掘金山數

年次	自家探掘	中間	合計
六年	二三	七九	三一
七年	三三	三〇	三一
八年	三八	四三	八八
九年	一〇五	五三	一五八
十年	一〇九	八五	一九四
十一年六末	一一三	八二	一九五

그러고 今回의 稅制改革案에 依하면 所得稅、營業收益稅의 增加라는 一般的의것外에 鑛業稅의 引上、特히 金의鑛產稅新設은 大打擊이라하지 안흘수업다 即 稅率千分之十二에 道府縣二割、町村五割의附加稅에 依하야 千分之二〇、四가되고 이는 政府의 產金獎勵策과 矛盾되는것으로 一說은 그增額에 依하야 他面政府는 產金保護의 積極策을 取하지안흘가 하는것이다 例컨대 中央製鍊所의 設置와如한것은 中小金山의 開發을爲하야 不可缺의것으로 金鑛產에 對한 新稅에依한 收入을 그方面에 充當하지안흘가하는 것이다 그趨移는 注目되는터이다

日用商品市況

二十七日 京城市內 海產物市況은 大體다음과갓다

▲明太 小騰

明太는 元來 日氣가冷寒하면 腐敗의 度가적어서 品質保存이 强한데 夜來의低溫繼續으로 市勢의 小騰을 보아昨日한두름(二十尾)에 四十五錢乃至五十錢하든것이 今朝는 六十錢을唱하고잇다 그러고 漸次 本漁期로 向하고 잇는만큼 入荷도 만흐며 賣行도 良好하다 乾明太도 亦是活況을 呈하고 잇는바 今日한짝(三十두름)市勢는 舊太 朝鮮產 十九圓乃至十九圓五十錢新太 十六圓 五十錢가량이다

▲도루목 閑散

도루목은 昨日부터 入荷가殆無狀態로 그原因은 氣候가冷寒한것과 漁期가 滿了되는까닭인데 現在市中의 在荷品은한짝에 二圓가량으로 賣買된다

▲明卵 堅調

明卵은 近日 出廻를보게되야

▲미역 保合

미역은 繼續的入荷를보고잇는바 市勢는 多少 入荷를보고잇는바 市勢는 堅調를 示하야 一桶에五圓 乃至六圓五十錢 入圓가량이다 今日市勢는 한손(二十葉)에 三陟長藿 一圓九十錢 沙葦六十錢가량이다

▲大口魚 小低

乾大口魚는 漸次 入荷增의傾向인데 今日每斤市勢는 舊品二十一錢 新品 二十四錢가량이다

▲메르치 小低

메르치는 入荷需要共히 普通狀態인데 今日 每貫市勢는 一圓八十錢 乃至 二圓二十錢 二圓五十錢가량이다

朝鮮米積取 商船의配船

鮮米移出도 本格化할려는 今日 商船에서는 西朝鮮、東京航路配船을하고 來十二月一日부터 五十噸級의 江蘇丸、折江丸、日興丸을 定期就航케 하리라한다

葉煙草自給目標 耕作面積大擴張

專賣局에서方針決定

專賣局에서는 最近의煙草賣行增進에 對應하는 一方輸入葉을 極力防遏하야서 原料葉煙草自給自足의 方針下에 昭和十二年度는 朝鮮內生產을 六百八十萬貫으로 豫定하야 各道別耕作面積을 左와如히 決定公示하얏는데 이를 前年度計畫에比較하면 四十萬貫의增產을示할것이라고한다

道	種	面積(町)
京畿道	龍仁葉	三八四、〇
忠清北道	清州葉	二、一九八、〇
	黃色種	二、五九二、六
	寧越葉	六五六、五
	沃川葉	四三三、〇
忠清南道	淳昌葉	一一五、七
	錦山葉	五五、三
全羅北道	禮山葉	一、〇三六、四
	秦野葉	三六九、八
全羅南道	淳昌葉	一、〇二〇、〇
	錦山葉	一七〇、七
慶尙北道	河東葉	二〇二、〇
	水府葉	一〇〇、〇
	永川葉	一九四、二
	秦野葉	五七一、三
	安東葉	一、一三〇、二
慶尙南道	居昌葉	三三七、八
	秦野葉	二六四、八
	居昌葉	二一五、〇
	咸陽葉	四四八、〇
黃海道	河東葉	一〇三、九
	載寧葉	一、五一四、二
	谷山葉	四五〇、七
平安南道	价川葉	三〇〇、〇
	成川葉	六三〇、〇
江原道	陽德葉	三六五、〇
	孟山葉	四六七、三
	寧遠葉	一、六四三、五
	金城葉	五五八、九
咸鏡南道	谷山葉	七五、三
合計		一八、六九三、七
內譯 朝鮮種		一五、一七二、八
日本內地種		一、九二八、八
黃色種		二、五九二、六

全州專賣局에서 葉煙草收納實施

【全州】 全州地方專賣局 管內 煙草收納開始는 禮山出張所의 十一月四日을 비롯하야 陽의 一月二十九日로써 끗을마칠豫定이라는데 收納數量은 三百五十二萬七千四百六十一斤이며 八十九萬一千四百八圓의 賠償金을 豫想한다고한다

漁業의王座 鰮漁業趨勢 (六)

以上과가티 油肥金組는 朝鮮殖產銀行으로부터 大資金을 融通하야 鰮漁業의 安全性을 增大하는것이 各組合에 融通되는 金額은 左表와가티 飛躍的增加를 示하야 鰮漁業의 發展을 圖하고잇는데 今年의 中途에 이르러 鰮油肥金組合 融資

(昭和六年度乃至昭和十年度)

鰮油肥組合別委託販賣資金 融資表

組合別	委託販賣資金	共同購入資金	貸付事業資金	合計
昭和六年				
咸北油肥組合	五〇〇、〇〇〇	—	一四〇、〇〇〇	[illegible]
咸南油肥組合	—	一〇〇、〇〇〇	[illegible]	[illegible]
江原油肥組合	—	一〇〇、〇〇〇	[illegible]	[illegible]
慶北油肥組合	—	五〇〇、〇〇〇	[illegible]	[illegible]
計	—	八〇〇、〇〇〇	[illegible]	[illegible]
昭和七年				
咸北油肥組合	三〇〇、〇〇〇	三〇〇、〇〇〇	一八〇、〇〇〇	[illegible]

組合別	委託販賣資金	共同購入資金	貸付事業資金	合計
昭和八年				
咸北油肥組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咸南油肥組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江原油肥組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慶北油肥組合聯合會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昭和九年				
咸北油肥組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咸南油肥組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江原油肥組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慶北油肥組合聯合會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昭和十年				
咸北油肥組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咸南油肥組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江原油肥組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慶北油肥組合聯合會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備考 一 漁肥組合의 委託販賣資金은 認可限度이다(單位圓)

다음 朝鮮殖銀 水產組合은 年年 朝鮮殖產銀行으로부터 次表와가티 起債하야 組合員에게 各種金融을 行하고잇다

朝鮮殖產銀行으로부터 借入金 年度別表

年度	貸付事業資金	共同購入資金	委託販賣資金
昭和六年	七〇〇、〇〇〇	[illegible]	[illegible]
昭和七年	七〇〇、〇〇〇	[illegible]	[illegible]
昭和八年	八〇〇、〇〇〇	[illegible]	—
昭和九年	一、〇〇〇、〇〇〇	[illegible]	—
昭和十年	[illegible]	[illegible]	—

備考一 金額의 單位는 圓

다음과가티 組合에 對한 金融事業은 大體 委託販賣資金의 融通이다 組合이 組合員으로부터 委託販賣의 漁獲物을 受하는 그代金中에서 販賣代金中에서 一定의 比率(五分乃至七分五厘)을 控除하야 組合員의 出資金으로하야 積立케하는바 … 販賣代金中에서 一定의 歩合을 다음과가티하야 組合員에게 還元하고잇다 …

二、事業資金貸付 保證人二名以上을 세우거나 又는擔保物을 提供식혀서 一名에對하야 三千圓을限하야 貸付한다 擔保物을 提供하는 境遇에는 特히 一萬圓을原則으로하는데 …

三、共同購入事業에 必要한 資金 … 六〇日以內、延滯하는 境遇에는 延滯利息의 回收는 販賣代金中에서 控除하기로 되어잇다(完)

鑛業權設定·移動

◇鑛業代理人屆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鑛業權者	事項
七三四一	慶南固城郡東海面	田中政次郞	鑛業代理人井上壽吉을 解任、十一年十月二十三日屆出
一三五三二	全南道光山郡林谷面	鄭鳳鎬	光山郡林谷面鄭邁同을 鑛業代理人으로選任한旨昭和十一年十月二十四日屆出
一〇四一七	咸南安邊郡安道面	崔完基	鑛業代理人斑越雲五를 解任하고 定平郡府內面姜秉輿을 鑛業代理人으로 選任한旨昭和十一年十月二十四日屆出
一二七六〇	慶南固城郡三山面	富田浩太郞	鑛業代理人山岸淸三郞을 解任하고 固城郡三山面金田弘을 鑛業代理人으로選任한旨昭和十一年十月廿四日屆出
九二九二	京畿楊平郡砥堤面	田中民治	楊平郡砥堤面安隣老을 鑛業代理人으로選任한旨昭和十一年十月廿四日屆出
六六八三	全北茂朱郡赤裳面	手島啓夫	扶餘郡窺岩面機、瑞 鑛業代理人으로選任한旨 昭和十一年十一月廿八日屆出
四一五一	星州郡龍岩面	郡野正一	光陽郡光陽西村三郞을 鑛業代理人으로選任한旨昭和十一年十月廿八日屆出
八七四八	京畿楊平郡楊東面	武智正胤	楊平郡楊東面金炳培를 鑛業代理人으로選任한旨昭和十一年十月廿九日屆出
八七八九	平南順川郡慈山面	小島政治	鑛業代理人木村良策의任所를京城黃金町으로變更한旨昭和十一年十月三十日屆出
一〇九九	慶北高靈郡雲水面	同	
八八六五五〇	平北朔州郡水豊面	中外鑛業株式會社	朔州郡外南面窪田潔을 鑛業代理人으로選任한旨昭和十一年十月三十一日屆出
一〇九九五〇二	同外南面	同	
一〇〇二五五	同外南面南西面	同	
一一二五一七	同朔州郡外南面	同	
一一三四四一	同昌城郡古邑面	同	
九〇三	忠南靑陽郡斜陽面	同	靑陽郡斜陽面高石久吉을 鑛業代理人으로選任한旨昭和十一年十月卅一日屆出
一一七九三	平北龜城郡	姜孝貫	龜城郡龜城面方孝貞을 鑛業代理人으로選任한旨昭和十一年十一月二日屆出
一〇五〇四〇五	忠南靑陽郡靑陽面	朝鮮中央鑛業株式會社	鑛業代理人本宮國助를解任한旨昭和十一年十一月三日屆出
一三四〇四	全南靈光郡蝟島面	李寶淳	長城郡森西面李鍋天을 鑛業代理人으로選任한旨昭和十一年十一月三日屆出

◇共同鑛業權者脫退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事項
一三六四二	江原江華郡看東面	十一月二日	田寬富任意脫退
一〇〇二四	慶北義城郡丹密面	十一月四日	李相詰任意脫退
一三二四二	平北江界郡曲河面	十一月四日	李希丁任意脫退
一二六一九	江原通川郡臨南面高城郡新北面	十一月四日	林泰德任意脫退
一〇三六七	咸南北靑郡厚昌面谷面	十一月四日	松崎英彥任意脫退
同	同	同	崔浩雲任意脫退

◇鑛業權消滅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事項
一〇三六八	黃海松禾郡栗谷面	十一月四日	廢業
八八九七	忠南天安郡廣德面 山面	十一月五日	廢業

◇共同鑛業代表者指定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事項
一〇〇二四	慶北義城郡丹密面善山郡桃開面	十一月四日	代表者李金台를으로指定

社會事業協會收合 水害義捐金

▲六、六四四 慶北漆谷郡漆谷公立普通學校生徒(朝鮮人)▲八、三〇〇 樺太泊居郡大字小田洲村島長 ▲十三区長武田米治外六十五名▲二、〇〇京城地方法院民事部 ▲四二五、六八東京市中野區住民(中野區長加藤守道扱)▲一〇、〇〇 愛知縣西春日井郡新川町士族野新田八ノ一新川公會堂 一、二〇二、四六 雄本縣知事扱▲五〇、〇〇 朝鮮事業協會平北支部(扱)▲一〇〇、〇〇 一〇(同)▲一〇、〇〇(同)▲一、〇〇(同)▲九、七四六 二九(同)黃海道支部(扱)▲二四九、二四一 樺太廳內務部長(扱)▲五、〇〇 無名氏(本府官房外事課長扱)▲四〇、四五 公主 鮮人有志(同)▲一〇、〇〇新京 善社(同)▲二五、八六新京滿 校生徒(同)▲一〇、三〇本府官房人事課▲三、〇〇 美城郡土浦町士浦憲兵分隊▲一七、三七本府警務局圖書課▲一四、五一同官房秘書官室▲二七、〇五同官房外事課▲一七、四一同 事業協會職員▲一三、八七朝鮮社會事業協會職員▲一三、五四本府內務局社會課▲五、〇〇岡山縣邑久郡國府村村民(村長石原藤四郎扱)▲九五、七七朝鮮總督府高等法院▲一〇、九〇(同)圖書館▲三、三三 五一(同)法務局▲四〇、六四京城高等商業學校職員▲五八、〇九本府內務局土木課▲五〇、九〇京城師範學校職員▲一五、四二本府學務局社會敎育課▲二五、六二代表者大英聖書公會ホップスターンス

十一月二十一日現在 累計 四七一、六九七、五八

九、八五東京市澁谷職業紹介所失業登錄者一同 李新春 吳承鶴 白南壽 田村善太郎 島倉猪之吉 劉士屆 一尙 崔文金鳳 孫鍾秀 崔尙文 李鍾善 金洙龍 朴興義 柳益馨 無名氏 林富稔 內野克海 鄭鍾根 朴壽萬 金萬亨 菅沼謙三 金基生 本多紫三郞 勝又常雄 菅谷幸作 黑川龜藏 鳳岡美三郞 金貫東 鄭在明 李達壽 沈卜介 井原近彭 金明玉 鈴木國夫 紺長玉 永島谷五郞 崎島永 大友常山 幸作 萩村時太郎 加藤義吉 鄭漢浩 原田力三郞 諸相周 谷山部 峰吉 藤木直亮 金鳳出 中澤光一郞 鄭龍伊 金永福 全井寓 朴螢圭 鄭甲植 阿部常吉 李孝龍 島田幸次郞 崔野介 旗谷和助 秋元彥太郞 瀧澤角平 金東石 熊谷松太郞 砂川勘助 內田巳一 松島宇久次 武 李桂延 本田巳代之助 李紅井 石田仙太郞 金卜東 赤澤常五郞 孫聖仁 金玄得 溝口喇作 李判順 金明順 陳三岩 三吉喜藏

▲六六、〇〇 愛知縣知多郡半田町荒古六二知多部落朝鮮人(費用九十五錢除)

李萬植 李永雨 田江山 朴達守 李道福 孫基俊 朴興烈 金萬慶 白再甲 全德守 陳景用 李明元 文永俊 李匡石 朴鳳俊 鄭敬善 沈龍虎 姜在春 朴相命 吳璉根 金福大 李相彥 吳八成 朴東載 李孝鳳 金仁泰 明千一 李敏吉 朴九賢 金容學 李武元 崔龍關 蔡壽鳳 鄭信弼 孫厚龍 姜龍祚 崔羅均 薛日貫 諸震九 李亨壽 金均泰 崔丁錫 鄭昌洙 朴洪珍 徐景碩 徐榮錫 鄭敎灰 金長榮 安元中 申鉉九 洪鍾燮 張永五 金萬戌 許正基 林壽玉 朴岑洙 安且興 金萬洙 金秉淑 金朱泰 金根煥 吳在石 朴生九 南道鳳 裵致斗 文明俊 金道彥 孔奉成 申喆鍊 金龍述 金東萬 禹東出 諸鳳煥 韓永俊 姜相五 河允九 李吉星 金太連 金太坤 二五錢 安順俊 黃亨時 二〇錢 李中華 盧長律 諸順植 金相周 韓壽鎭 許眞杜 徐斗英 徐基鳳 李相基 李原雨 李乙孝 李台應 李相雨 辛根洙 池萬春 李漢雨 金榮泰 李相雨 金錫伊 李再鎭 朴道仁 高在權 河憲洛 姜斗伊 李元春 鄭陽浩 姜在述 都好玄 朴末萬 金九龍 金雨成 姜岩伊 金文玉 金丁錫 金永元 金仁連 安占守 金都板 權在萬 諸知相 車萬勳 崔道龍 崔順海 金仁俊 綰萬石 一〇錢

▲二〇、〇〇 平野同志親睦會員一同 大阪市住吉區平野京町 柳洪玉 孫明千 白雲學 金學洙 吳根伯 徐鍾模 金永喜 金奇峰 李東鎬 金汝洙 車炳弼 金光洙 吳光烈 宋長元 田泰鎬 金元氣 金成烈 諸貴龍 申明求 李熙淵 金六鉉 崔玩貫 朴性來 尹有童

▲二三、六〇 舊昭仁親睦會 大阪東淀川區本庄中通三丁目 二、〇〇 林養詰 一、〇〇 諸鳳石 韓箕錫 朴鳳云 金기錫 愼宗元 李承敦 李泳俊 崔禎鎬 洪在範 黃春煥 五〇錢 金聖鎭 劉鐵伊 李吾亭 吳奉準 朴箕三 徐丙元 陳石宗 劉九利

金仁俊

▲一四、三〇 新上金融組合婦人會 一、〇〇 金寶潭 姜甲順 五〇錢 金恩蓮 崔義順 李雄玉 金貞浩 ...

四〇錢 一、〇〇 朴美香 薛明姬 李英淑 李淑子 漢城券番藝妓一同 五、〇〇 金百五 金桂紅 李花紅 三、〇〇 金紅桃 金玉香 崔玉葉 李姬淑 金永姬 李山紅 吉彩玉 姜妍花 柳錦桃 鄭雪中梅 二、〇〇 金花仙 白牧丹 宋錦玉 崔彩仙 朴美春 李淑德 崔錦翠 宋山玉 崔妍妍 朴蘭香 李飛鳳 金桂仙 李中仙 ...

▲三三、九七 武庫郡宇部內相助會武庫總本部 南光明 劉燦彦 鄭道成 李圭鶴 金成甲 石又岩 崔允俊 李泰信 ...

雙虹舞 【48】

方仁根 作 金奎澤 畫

男妹(三)

지원은 저녁을먹고나서 상을물리고나서 말을 걸엇다。

『시골이라도 이번은 시골에서 어데살엇고 차저다니십니까』하고 물엇다。

『대개 충청도 지명이라니까 큼직큼직한 읍내로만 차저다녀보면 설마 만나겟지』

『그러나 그러케 찻기도 용이치 아니하려니와 대관절 아버지 신변이 위험치아니한니까』

『글세 그것이 맘에걸리지마는 하루라도 속히 복구십다는거와 그걸 하루밧비 지옥에서 건저내야되겟다는생각에 위험을 몰아지가잇서야지』

『글세 그것도 그럿습니다 제가 매인몸이아니면 차저다녀보앗스면 조켓습니다마는――경찰서에 제가 수색원을 제출해볼까요……』

『아니 그것도 안되지 위험해――그리고 무슨이름으로 행세하는지 알수가잇서야지――서울서 들으니까 무슨 명웝이라고 이름을 지엇다는데 그도 알수잇나……』

광호는 깜작 놀래며

『네? 명웝이에요!』하고 소리첫다。

『응 그러라는가봐』

광호의 머리에는 정거장요릿집에 명월이라는 기생이 잇다는말을드른생각이 번적이러낫다

그리고 제육감(第六感)이 번개처럼 번적하고 가슴이 벌서울렁거리엇다。 꿈일이! 명월이!

그찬란한 화상이 광호의 눈에 『네온싸인』처럼 번적어리엇다。

그러케 생각되니 잠시를 참울수가업섯다。

『아버지! 제가 어듸좀 갓다오겟습니다』하고 광호는 황급하게 이러낫다。 지원은 깜작 놀래며

『어될갓다오는말이가 갑작이…』하고 의아한눈으로 처다보앗다。

『저 다름게아니라요 여기서 한십리되는 정거장에잇는 요릿집에 명월이란 기생이 잇는데 암만해도 꿈일이 가튼생각이 듭니다 어서가서만나보아야 하겟습니다』

가 곱실힐것갓습니다 속 시원하게 얼른다녀와야겟습니다』

광호는 부주히 양복을 차려입고 모자를썻다。

『그럼 정말 꿈실힐것가트면다리고 오겟나…나도 거긔 가서어느여관에 들고 그애를만나는게 조켓는데……』

『그러키도 합니다마는 여관가튼데가시면 댁정탐로가 나실러이니까…좌우간 꿈일이가 확실하면 여기로 다리고오지요』

『그런데 여기는뱀찬켓나』

『뭐상관업습니다 나종에 다말하지요―그리고 이집이 면장어른댁이니까 안전지대입니다。

그리고 그면장이 제 장인이 됩니다』

『응그래 그런걸혼햇데 그러』

『네 바루 여름에 햇습니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눈을 깜작깜작하엿다。

『그러단녀오겟습니다。 편하신데 이불을 펴고 누워계십시요 그리고 저책이나보시든지……』

『어듸 책 볼 경황이 잇나』

『좌우간 안심하고 게십시요』

광호는 밧으로 나와서 급한김에 안해 은영에게 말도못하고 나오든것을 생각하고 다시들어가서

『내어듸좀 단녀오리다 손님은 사랑에 그대로게시니까 그럴줄 아오』하고 미처 은영이 물어보기도전에 뒤어 나와왓다。 그는 자동차를 라러고창린로 들어가 좋을 치서 나려왓다。

『응―그러키도해―그럼 여러시간 걸리나』

『자동차로 갓다오니까 그리오래걸리지는 아니할것갓습니다』

『그럼 조심해서 얼른 단녀오게。 그동안을 어떠케 갑갑해서 기다리고잇느냐말이냐 좌우간 그애나 확실햇스면 오죽조켓나만』

『글세올시다―그러나 저는 웬일인지 맘에써이는게 암만해도

『응―그래 그러나도게세』하고 지원도 황급하게이러낫다。

『아니올시다 저혼자 가보겟습니다 분명히 그러지도 알수업습니다 도거기끔은 번화하니까 위험합니다 가만히 여기게십시요 레일기도 조켓지만 레열으히에도 가야하고 또한시라도 급하니까요』